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的 研究 II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四象新編』을 중심으로)

김명균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f Combinational Using with Constitutional Medicines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I

Kim Myeong-Gyun,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one's constitutional medicine can be used for other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us to underst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In Dong-Mu's writings - 『DongMuYooGo』,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uen』, 『Dongyi sasang shinpyun』-, I found out that one's constitutional medicine has been used for others.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re are 13 medicines that have been used and mixed with other constitutional medicines in 『DongMuYooGo』.
- 2) There are 3 medicines that have been used and mixed with other constitutional medicines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uen』.
- 3) There are 18 prescriptions that have combined with other constitutional medicines in 『Dongyi sasang shinpyun』.

Key Words : combination with constitutional medicines, Dongyi sasang shinpyun, Dong-Mu's writing

I. 緒 論

이을호는 四象醫學 3대 원칙이라 하여 四象體質 例外不許의 원칙, 四象體質 不變의 원칙, 藥物混用 不可의 원칙을 주장하였는데^{1,2} 이 중에서 四象體質 例外不許의 원칙과 四象體質 不變의 원칙은 『東醫壽世保元』 원문에서 찾을 수 있으나, 藥物混用 不可의 원칙은 『東醫壽世保元』 내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에 나타난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³.

현재 東武의 著書로 생각되는 서적으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가 있으며, 元持常의 저서로 되어 있으나 東武 李濟馬의 저작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東醫四象新編』이 있다. 이 세 가지 書籍은 저작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東武遺稿』는 이 등⁴과 박^{5,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볼 때 어느 한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보다는 東武가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39세경)부터 末年(58세 이후)까지의 내용이 합쳐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46세 이후에서 57세 이전 정도에 지은 것으로⁹ 생각된다. 『東醫四象新編』은 윤 등⁷의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연구에서 李濟馬의 著書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

• 접수일 2005년 10월 25일; 승인일 2005년 12월 5일
• 교신저자: 박성식
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ac.kr

『醫壽世保元』 甲午本, 辛丑本을 출전으로 하는 처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서적을 東武의 著書로 보고 이전의 연구에 더하여 각 著書에 나타난 體質藥物의 混用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앞의 연구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 고찰하여, 약간의 소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本 研究는 『東醫四象新編』에 나타난 四象體質에 따른 약물(이하 體質藥物)의 사용 방법 중에서 나타난 體質藥物 混用の 예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본 것이다. 藥物 混用이 나타난 처방에 대해 출전과 의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2. 版本의 名稱

1) 北韓 保健省 『東武遺稿』를 『東武遺稿』라 칭하고 사용하였다. 『東武遺稿』의 약물은 「東武遺稿 藥性歌」,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그리고 본문의 「病證藥物」에 등장하는 약물로 파악하였다.

2) 『東醫四象新編』은 1929년 文友社에서 刊行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元持常의 저서로 알려져 있으나 윤 등⁷⁾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李濟馬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논고를 진행하였다.

3)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草本卷』이라 칭하고 朴性植이 譯解한 것을 사용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의 약물은 本文에 나타난 약물로 파악하였다.

4) 비교를 위해 사용한 甲午本은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통해서 復元한 甲午年의 『東醫壽世保元』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

5) 비교를 위해 사용한 辛丑本은 活字화된 1901年(辛丑年) 初版本 『東醫壽世保元』을 본문에서 ‘辛丑本’이라 하고 사용하였다. 辛丑本은 東武가 卒한 뒤인 그의 門人들이 新本(庚子本)과 舊本(甲午本)을 모아 활자화된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을 발간한 것이다. 그러므로 辛丑本 『東醫壽世保元』에는 甲午本과 庚子本의 내용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 등⁸⁾ 연구에 따라 「經驗設方」은 甲午本의 시각으로 보고 『東醫四象新編』의 처방과

비교할 때 甲午本과 비교하였으며, 신축본과는 비교하지 않았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泛論」의 내용이 辛丑本과 甲午本에 동시에 있는 경우도 甲午本의 시각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III. 本 論

1. 『東武遺稿』에서의 混用例

1) 「東武遺稿 藥性歌」¹⁾에 나타난 混用 例

「東武遺稿 藥性歌」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약물을 歌訣형태로 만든 것이다.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각각 27가지씩 81가지 약물을 18개의 歌訣로 만들었다.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나타난 총 81가지 약물은 서로 混用되어 사용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2)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²⁾에 나타난 混用 例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기존의 藥性歌 형태로 설명되는 237종의 약제를 體質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少陰人藥은 脾藥으로 90종, 少陽人藥은 腎藥으로 67종, 太陰人藥은 肺藥으로 61종, 太陽人藥은 肝藥으로 19종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중복된 약은 그대로 포함하여 계산하였다)³⁾. 이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東武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藥性歌를 四象人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나타난 237종의 약물 중에서 神麴은 少陰人과 少陽人에서 混用되며, 紫河車도 少陰人과 少陽人에서 混用되어 사용되고 있다. 柴胡는 太陽人과 少陽人의 약으로 혼용되었다. 또한 鷄卵은 熟하면 太陰人藥이고 生하면 少陽人의 약이라 하여 수처에 따라 약성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病證藥物」³⁾에 나타난 混用 例

1) 「東武遺稿」에서 “人參 補脾和脾”, “白朮 健脾直脾” 등으로 표현된 부분을 말한다.

2) 「東武遺稿」에서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白朮甘溫 健脾強胃 止瀉除濕 兼驅痰痺”와 같이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東武遺稿」에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와 「東武遺稿 藥性歌」를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즉, 「四象人食物類」, 「發表藥」, 「清熱藥」 등에서 나타난 내용을 말한다.

(1) 타 體質의 약물과 混用이 가능하다.

『東武遺稿』下篇「下藥」에서 “少陰人 下藥 輕則 桃仁當歸加大黃也 重則 巴豆也 …… 大黃則肺之下藥也 有桃仁當歸 故兼帶用之也”¹²라 하여 大黃이 肺의 약이지만 다른 약물과 並用하므로 少陰人에서 겸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였고, 「治癰核方文」에서 “合瘡藥 則水松津 爲第一藥云 少陽人合瘡藥 太乙膏爲第一藥 而太陰少陰人 亦無妨”¹²이라 하여 少陽人의 약이라고 제시된 약을 太陰人과 少陰人에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제시하고 있다. 「四象人 食物類」에서는 稗이 少陽人과 太陽人에 같이 속하여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².

(2) 타 體質의 약물과 混用하면 안 된다.

『東武遺稿』下篇「總論」에서 “肺의 병에 蕎麥, 葡萄, 木瓜, 黃芪, 甘草 등이 막는 힘이 여유가 있으므로 나쁘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약물을 肺, 脾, 肝, 腎의 약물로 나누고 나누어진 약물이 다른 체질에 사용되면 나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¹².

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의 混用例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는 조문 내에서 處方이나 治法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으며 「卷之三 藥方」편에서 體質別로 少陰人 藥方 13종, 少陽人 藥方 38종, 太陰人 藥方 31종, 太陽人 藥方 2종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처방들은 기존의 處方을 體質別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옛날 處方을 加減 변형하여 體質別로 운용하기도 하며, 새로 體質別 處方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하였다⁹.

1) 약물의 混用이 나타난 경우

「卷之三 藥方」중에서 體質에 관계없이 甘草와 白芍藥이 사용되는 예가 나타난다⁹.

(1) 甘草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卷之三 藥方」에서 “甘草 生用則補肝 灸用則補脾”⁹하여 生甘草는 太陽人의 약이며, 灸甘草는 少陰人의 약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少陽人의 敗毒散, 石膏敗毒散, 柴胡敗毒散, 木通敗毒散, 玄參敗毒散, 益元散의 6개 처방에서 甘草가 사용되었고, 少陰人에서도 총 17개의 처방 중 12개에서는 灸甘草를 사용하였으나, 藿香正氣散, 不換金正氣散, 人參養胃湯, 香蘇散, 二香散의 5개 처방에서 生甘草를 사용하여 약물의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2) 白芍藥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卷之三 藥方」에서 白芍藥은 少陰人 藥方 중 四物湯, 四物湯 活套 1개 藥方, 安胎飲, 八珍湯, 十全大補湯, 錢氏異功散, 錢氏異功散 活套 4개의 10개 藥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 太陽人의 獼猴桃湯에서도 白芍藥이 사용되어 白芍藥의 사용에 있어서 체질간 약물의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2) 타 體質의 약물이거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시된 용례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卷之二 病變·第六統」에서 “少陽人水銀比諸少陰人之參茸則 藥力加倍……水銀有蟲之效 曾見少陰人頭瘡累年不愈者 有熏水銀而得效者……”⁹이라 하여 水銀이 少陽人의 약이라고 제시하고도 少陰人의 頭瘡에 효과가 있다는 용례를 보이고 있어 藥物의 混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卷之二 病變·第六統」에서 “補中益氣湯之升麻柴胡 大小承氣湯之大黃芒硝 白虎湯之粳米 益元散之生甘草 制用有得變通之宜 古方自不可”⁹라 하여 古方을 사용하되 문제가 되는 약물을 법제하는 등의 變通을 하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3) 타 體質의 藥物의 사용이 藥力을 해친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卷之二 病變·第六統」에서 “四君子之茯苓 四物之地黃 六味之山藥 贊味及害主藥之性 古方不如新方”⁹이라 하여 기존의 처방에서 체질에 맞지 않는 약물에 의해서 藥力이 저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 『東醫四象新編』에서의 混用例

『東醫四象新編』에서 약물의 混用이 있다고 생각되는 처방은 人參吳茱萸湯, 溫白元, 三棱消積丸, 三物白散, 如意丹, 牽正散, 秘方化滯丸, 水銀熏鼻方, 白虎湯, 腎氣丸, 黃連豬肚湯, 涼膈散, 黑奴丸, 五苓散, 保胎地黃湯, 香砂六君子湯, 贊化丹, 豬苓湯의 18개 처방이다. 이 처방들을 원래 출전으로 생각되는 문헌에 따라 분류하여 그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1)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 출전을 찾을 수 있는 처방⁴⁾

(1) 甲午本과 동일하게 기재된 처방

混用되거나 가감된 내용이 甲午本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① 少陰人 三棱消積丸

三棱, 蓬朮, 神麴, 巴豆, 青皮, 陳皮, 茴香, 丁香皮, 益智仁으로 구성되어 있다. 神麴은 다소 체질 분류에서 의문이 가는 약물인데, 『東醫四象新編』 少陽人 李氏肥兒丸에서 神麴이 사용되고 있어 少陽人과 少陰人에서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또 『東武遺稿』에서 神麴은 少陰人과 少陽人 모두의 약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어느 체질의 약물인가에 다소 의문이 있으나 체질간 混用을 보이고 있다. 三棱消積丸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에서 그 출전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내용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今考更定하거나 當去하지도 않았다.

② 少陰人 三物白散

桔梗, 貝母, 巴豆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貝母와 桔梗은 「四象人藥」에서 太陰人의 약으로 제시되어 있어 약물의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甲午本の 三物白散에서도 貝母와 桔梗을 當去하지 않고 混用하고 있다.

③ 少陽人 黃連豬肚湯

雄豬肚, 黃連, 小麥, 天花粉, 白茯苓, 麥門冬으로 구성되어 있다. 麥門冬은 當去한다고 하였으므로 混用된 예로 보기 어려우나 이 중 小麥은 混用되는 예로 생각된다. 黃連豬肚湯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元明 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에서 그 出典을 찾을 수 있으며 처방 내용과 가감한 내용이 동일하다.

④ 少陽人 涼膈散

連翹, 大黃, 芒硝, 甘草, 薄荷, 黃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처방에서 大黃, 甘草, 黃芩을 去하여 李氏涼膈散으로 명명하여 기재해 놓았다. 李氏涼膈散을 기준으로 하면 混用된 예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東醫四象新編』에서 기존 처방을 적어 놓고 當去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있는 반면 去한후에

다시 李氏○○○ 등으로 처방을 기재한 점이 특이하다. 甲午本の 涼膈散에서 大黃, 甘草, 黃芩을 今考更定하여 當去한다고 하였다. 이는 李氏涼膈散과 동일하다.

⑤ 太陰人 黑奴丸

麻黃, 大黃, 黃芩, 釜底煤, 芒硝, 竈突墨, 梁上塵, 小麥奴로 구성된다. 이 처방에서 芒硝를 去하여 李氏黑奴丸이라고 명명하여 기재하고 있다. 李氏黑奴丸을 기준으로 하면 混用된 예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앞의 涼膈散의 예와 같이 본방을 제시하고 去하여 다시 李氏○○○의 형식으로 처방을 기재한 점이 특이하다. 甲午本の 黑奴丸에서 芒硝를 今考更定하여 當去한다고 하였다. 이는 李氏黑奴丸과 동일하다.

⑥ 少陰人 秘方化滯丸

三棱, 蓬朮, 半夏, 木香, 丁香, 青皮, 陳皮, 黃連, 巴豆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黃連은 少陽人의 약물로 少陰人 처방에서 混用되고 있다. 甲午本の 秘方化滯丸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약물 용량의 차이는 있으나 약물의 구성은 동일하다. 甲午本에서도 秘方化滯丸에서 黃連을 當去하지 않고 있다.

⑦ 少陽人 腎氣丸

六味地黃湯加 五味子로 구성된다. 五味子は 太陰人의 약물로 생각된다. 六味地黃湯은 원래 出典인 『醫學正傳』과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熟地黃, 山茱萸, 山藥, 澤瀉, 牡丹皮, 白茯苓으로 구성되어 있고, 『東醫四象新編』에서는 熟地黃, 枸杞子, 山茱萸, 澤瀉, 牡丹皮, 白茯苓으로 구성되어 있다. 東武의 다른 著書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의 六味地黃湯은 『東醫四象新編』의 처방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같은 서적인 『東醫四象新編』에 따른다고 보아서 五味子만 混用되고 있다고 보았다.

(2) 甲午本보다 混用이 되지 않게 수정된 처방

甲午本에서 유래된 처방으로 생각되는 처방 중에서 甲午本에서 混用이 있는 상태였다가 『東醫四象新編』에서는 混用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수정된 처방을 의미한다.

① 少陰人 溫白元

川烏炮, 吳茱萸, 乾薑, 肉桂, 川椒, 赤茯苓, 厚朴, 人蔘, 巴豆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赤茯苓은 『東醫四象新編』에서 少陽人 荊防敗毒散이나 木

4) 甲午本을 출전으로 하는 처방으로 정리한 14개의 처방에 대해 윤 등의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연구에서는 壽世保元의 처방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처방의 출전이 「經驗設方」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 甲午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通大安湯 등의 少陽人 처방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少陽人의 약물 생각되는데, 少陰人 처방인 溫白元에서 混用이 되고 있다. 甲午本의 溫白元은 川烏, 炮, 吳茱萸, 桔梗, 柴胡, 石菖蒲, 紫菀, 黃連, 乾薑, 炮, 肉桂, 川椒, 炒, 赤茯苓, 皂角, 灸, 厚朴, 人蔘, 巴豆, 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太陰人 약물인 桔梗, 石菖蒲, 紫菀, 皂角, 刺와 少陽人 약물인 黃連, 柴胡, 赤茯苓이 혼합되어 있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桔梗, 柴胡, 石菖蒲, 紫菀, 黃連, 皂角은 去하였으나 赤茯苓은 去하지 않았다.

② 少陰人 如意丹

川烏, 人蔘, 吳茱萸, 川椒, 白茯苓, 白僵蠶, 厚朴, 肉桂, 當歸, 巴豆, 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白僵蠶는 「四象人要藥」에서 太陰人의 약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茯苓은 「四象人要藥」에서 少陽人의 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白茯苓은 少陽人의 약물로 생각되며 少陽人의 처방에서 다용되고 있다. 다만 白僵蠶는 「四象人要藥」에서는 太陰人의 약물로 되어 있으나 太陰人의 처방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少陰人 牽正散에서도 白僵蠶이 사용되고 있어 연구가 요구되나 混用되고 있다. 甲午本에서는 川烏, 檳榔, 人蔘, 柴胡, 黃連, 紫菀, 桔梗, 吳茱萸, 川椒, 白茯苓, 白薑, 厚朴, 肉桂, 當歸, 皂角, 石菖蒲, 巴豆, 霜로 구성되어 있다. 混用된다고 생각되는 柴胡, 黃連, 紫菀, 桔梗, 皂角, 石菖蒲는 去하였으나 白茯苓은 혼용되고 있으며, 白薑이 『東醫四象新編』에서는 白僵蠶으로 되어있어 필사상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少陽人 水銀熏鼻方

黑鉛, 水銀, 硃砂, 乳香, 沒藥, 血竭, 石雄黃, 硫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약물 중에서 硫黃은 少陰人의 硫黃散에서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甲午本의 水銀熏鼻方은 黑鉛, 水銀, 硃砂, 乳香, 沒藥, 血竭, 石雄黃, 沈香으로 구성되어 있어 少陰人 약물로 생각되는 沈香을 去하고 硫黃을 可하였으나 硫黃도 混用되고 있다.

④ 少陽人 白虎湯

石膏, 知母, 甘草, 粳米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甘草는 少陰人의 약물로 생각된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 經驗設方藥十方」의 白虎湯과 동일하다. 『東醫壽世保元』 「經驗

設方」에서는 張仲景의 처방에 대해서는 當去하거나 今考更定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甲午本의 본문에서는 白虎湯에서 甘草를 去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少陽人 五苓散

澤瀉, 赤茯苓, 豬苓, 白朮, 肉桂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처방에서 白朮과 肉桂를 去하여 四苓散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去하고 나면 混用되는 예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전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 經驗設方藥十方」에서는 加減이 되지 않고 있던 것이 가감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며, 원래 張仲景의 四苓散은 五苓散에서 肉桂만을 去한 것을 의미하므로 다소 의문이 간다. 앞의 涼膈散이나 黑奴丸의 경우를 따르다면 李氏五苓散 정도로 기재해야 되며, 四苓散은 따로 그 내용에 대해 적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⑥ 少陽人 豬苓湯

豬苓, 赤茯苓, 澤瀉, 滑石, 阿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阿膠는 太陰人 처방인 保胎飲, 文武保胎飲에서 混用되고 있다. 甲午本의 豬苓湯은 今考更定하거나 當去하지 않았다. 다만 甲午本의 본문에서 阿膠를 去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⁵⁾.

(3) 甲午本에서 수정되었으나 『東醫四象新編』에서 수정되지 않은 처방

甲午本에서 유래된 처방으로 생각되는 처방 중에서 甲午本에서는 混用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東醫四象新編』에서 오히려 混用이 있는 상태로 기재된 처방을 의미한다.

① 少陰人 香砂六君子湯

香附子, 白朮, 白茯苓, 半夏, 陳皮, 厚朴, 白豆蔻, 人蔘, 甘草, 木香, 縮砂仁, 益智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白茯苓은 少陽人의 약으로 생각되며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甲午本의 香砂六君子湯에서는 白茯苓을 去하고 白何首烏를 가하여 사용하려고 기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東醫四象新編』의 香砂六君子湯에서는 混用을 그대로 두고 있다.

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今考更定 此證陽明者 但熱無寒之謂也 三陽合病者 太陽少陽陽明 俱有之謂也 已上諸證 當用豬苓湯白虎湯 而豬苓湯 當去阿膠 白虎湯 當去甘草……”

2)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출전을 찾을 수 있는 처방

(1) 少陰人 人蔘吳茱萸湯

人蔘, 吳茱萸, 生薑, 白芍藥, 當歸, 蟾蜍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蟾蜍는 「四象人藥」에서 太陰人의 약으로 설정되어있으며 太陰人의 약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少陰人의 처방에서 混用되어 나타나고 있다. 出典인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少陰人新定方」의 人蔘吳茱萸湯에서는 蟾蜍대신 官桂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등은 ‘以官桂 易蟾蜍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원문 자체를 존중하여 混用의 경우로 보았다.

3) 처방의 출전을 확인할 수 없는 처방

(1) 少陰人 牽正散

白附子, 白僵蠶, 全蝎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白僵蠶는 「四象人藥」에서 太陰人의 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少陰人과 太陰人에서 混用되고 있다. 牽正散은 출전을 명확히 알 수 없다.

(2) 少陽人 保胎地黃湯

民魚膠, 熟地黃, 山藥, 山茱萸, 澤瀉, 牡丹皮, 白茯苓, 糯米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山藥은 太陰人의 약으로 생각이 되며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保胎地黃湯은 出典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처방중의 民魚는 少陰人 秘傳香蘇散과 少陽人의 花惜地黃湯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3) 少陽人 贊化丹

熟地黃, 山茱萸, 牡丹皮, 澤瀉, 蘆薈, 木通, 苦參, 玄參, 柴胡, 前胡, 荊芥, 防風, 連翹, 牛蒡子, 紫菀, 黃連, 神麩, 麥芽, 忍冬藤, 瓜蒌仁, 甘遂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紫菀은 太陰人의 약으로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贊化丹은 出典이 명확하지 않다.

IV. 總括 및 考察

『東武遺稿』는 遺稿라는 의미대로 東武의 死後에 남은 글들을 모든 저작물이다. 이전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東武遺稿』는 어느 한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보다는 東武의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39세경)부터 末年(58세 이후)까지의 내용이 모아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東武遺稿』의 「東武遺稿藥性歌」에서는 少陰人, 少

陽人, 太陰人 각각 총 27가지의 약물이 18개의 歌訣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81가지 약물은 서로 混用되어 사용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 「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는 기존의 藥性歌 형태인 237종의 약재를 體質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에 나타난 237종의 약물 중에서 神麩는 少陰人과 少陽人에서 混用되며, 紫河車도 少陰人과 少陽人에서 混用되어 사용되고 있다. 柴胡는 太陽人과 少陽人의 약으로 혼용되었다. 또 鷄卵은 熟하면 太陰人藥이고 生하면 少陽人의 약이라 하여 수지에 따라 약성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病證藥物」에서 “少陰人 下藥 輕則 桃仁當歸加大黃也 重則 巴豆也 …… 大黃則肺之下藥也 有桃仁當歸 故兼帶用之也”라 하여 大黃이 肺의 약이지만 다른 약물과 竝用하므로 少陰人에서 겸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였고, 「治癰核方文」에서 少陽人의 약이라고 제시된 약을 太陰人과 少陰人에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東武遺稿』본문의 약물 비교에서 紫河車와 神麩, 稷은 少陰人과 少陽人에서 混用되고, 鹿茸은 少陰人과 太陰人에서 混用되며, 甘草와 黃芪는 少陰人과 太陽人에서, 朱砂, 葛根, 白芷, 升麻는 少陽人과 太陰人, 菘, 柴胡, 韋龍膽은 少陽人과 太陽人에서 混用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체질에서 다소간의 약물 혼용이 나타난다. 『東武遺稿』下篇 「總論」에서 肺의 약을 肝의 病에 사용하지 못하고 脾의 약을 腎의 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조문을 볼 때 『東武遺稿』를 쓸 당시에 東武는 약물을 분류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절대적 混用 不可의 입장은 아니었고, 修治나 다른 藥物과 併用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東武의 저서로 『東武遺稿』의 藥性歌 저술이후 즉 東武가 40에서 57세 정도의 나이에 저술한 것으로 생각된다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는 조문 내에 處方이나 治法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으며, 「卷之三 藥方」에서 여러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처방들은 기존의 處方을 體質別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옛날 處方을 加減 변형하여 體質別로 운용하기도 하며, 새로 體質別 處方을 만들어 제시하기

도 하였다⁹⁾. 少陽人藥, 少陰人藥, 太陰人藥, 太陽人藥으로 구분하여 처방을 제시하였으며, 약물의 효능에 관하여 『東武遺稿』에서 肺藥, 脾藥 등으로 기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少陰, 少陽, 太陰의 解表藥 혹은 通膈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草本卷에서는 『東醫壽世保元』과 같은 病證論의 기술이 없고 단지 각 藥方에 따라 主治症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體質病證藥理에 의거하여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약방을 운용하였다기보다는 체질에 따라 개별 병증을 중심으로 약방을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⁹⁾. 즉 병증에 따라 체질에 맞는 약방이나 기존 처방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處方에서 甘草와 白芍藥의 체질간 약물의 혼용이 나타나며, 水銀이 少陽人의 藥이라고 제시하고도 少陰人의 頭瘡에 사용하는 용례를 보이고 있어 藥物의 混用이 나타난다. 또한 타 體質의 약물이라도 修治하면 변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을 저술할 당시에 東武는 약물을 체질에 따라 나누어 사용해야하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기존의 처방을 응용하여 병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간에 약물의 混用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처방 중에서 체질약물이 다르더라도 變通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東醫四象新編』에서 약물의 混用이 있다고 생각되는 처방은 人蔘吳茱萸湯, 溫白元, 三稜消積丸, 三物白散, 如意丹, 牽正散, 秘方化滯丸, 水銀熏鼻方, 白虎湯, 腎氣丸, 黃連豬肚湯, 涼膈散, 黑奴丸, 五苓散, 保胎地黃湯, 香砂六君子湯, 贊化丹, 豬苓湯의 18개 처방이다. 이 처방들을 원래 출전으로 생각되는 문헌에 따라 분류하여 그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유래한 처방은 溫白元, 三稜消積丸, 三物白散, 如意丹, 秘方化滯丸, 水銀熏鼻方, 白虎湯, 腎氣丸, 黃連豬肚湯, 涼膈散, 黑奴丸, 五苓散, 香砂六君子湯, 豬苓湯이다. 이중 갑오본과 동일한 처방은 三稜消積丸, 三物白散, 黃連豬肚湯, 涼膈散, 黑奴丸, 秘方化滯丸, 腎氣丸의 7가지 처방이다. 少陰人 처방인 三稜消積丸의 神麴은 少陽人 李氏肥兒丸에서 神麴과 混用이 나타나

고 있으며, 少陰人 처방인 三物白散은 貝母와 桔梗가 太陰人의 약으로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少陽人의 黃連豬肚湯은 小麥이 混用되는 예로 생각된다. 涼膈散은 大黃, 甘草, 黃芩을 去하여 李氏涼膈散으로 명명하여 기재해 놓았으나 涼膈散 자체를 보면 混用이 나타난다. 黑奴丸은 芒硝를 去하여 李氏黑奴丸이라고 명명하여 기재하고 있어 李氏黑奴丸을 기준으로 하면 混用된 예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앞의 涼膈散의 예와 같이 원래의 黑奴丸만 본다면 混用되는 예로 볼 수 있다. 少陰人의 처방인 秘方化滯丸은 黃連이 少陽人의 약물로 少陰人 처방에서 混用되고 있다. 腎氣丸은 六味地黃湯加五味子로 구성된다. 五味子は 太陰人의 약물로 생각되어 混用되고 있다.

甲午本에서 유래하였으나 甲午本보다 混用이 되지 않게 수정된 처방은 溫白元, 如意丹, 水銀熏鼻方, 白虎湯, 五苓散, 豬苓湯이 있다. 少陰人의 溫白元에서 赤茯苓은 少陽人의 약물 생각되는데 溫白元에서 混用이 되고 있다. 甲午本의 溫白元에서 太陰人 약물인 桔梗, 石菖蒲, 紫菀, 皂角刺와 少陽人 약물인 黃連, 柴胡은 거하였으나 赤茯苓은 混用되고 있다. 少陰人의 如意丹에서 白僵蠶과 茯苓은 각각 太陰人과 少陽人의 약으로 생각되며 如意丹에서 混用되고 있다. 甲午本의 如意丹에서 混用되었다고 생각되는 柴胡, 黃連, 紫菀, 桔梗, 皂角, 石菖蒲는 去하였으나 白茯苓은 혼용되고 있으며, 白僵蠶은 원래 甲午本에서 白蠶으로 되어 있어 필사상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少陽人의 水銀熏鼻方에서 硫黃은 少陰人의 硫黃散에서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甲午本의 水銀熏鼻方은 黑鉛, 水銀, 硃砂, 乳香, 沒藥, 血竭, 石雄黃, 沈香으로 구성되어 있어 少陰人 약물로 생각되는 沈香을 去하고 硫黃을 可하였으나 硫黃도 混用되고 있다. 少陽人의 白虎湯에서 甘草는 少陰人의 약물로 생각된다. 『東醫壽世保元』 「經驗設方」에서는 張仲景의 처방에 대해서는 當去하거나 今考更定하지 않았고 다만 본문에서 甘草를 去는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少陽人의 五苓散에서 白朮과 肉桂가 混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약물을 去하여 四苓散이라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去하고 나면 混用되는 예로 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출전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 經驗設方藥 十方」에서는 加減이 되지 않고 있던 것이 가감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며, 원래 張仲景의 四苓散은 五苓散에서 肉桂만을 去한 것을 의미하므로 다소 의문이 간다. 少陽人의 猪苓湯에서 阿膠는 太陰人 처방인 保胎飲, 文武保胎飲에서 混用되고 있다. 甲午本の 猪苓湯은 今考更定하거나 當去하지 않았다. 다만 甲午本の 본문에서 阿膠를 去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비교할 때 甲午本에서 少陰人 瘴道丸은 混用이 있었으나, 『東醫四象新編』에서는 混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甲午本에서 수정되었으나 오히려 『東醫四象新編』에서 수정되지 않은 처방으로 香砂六君子湯이 있다. 少陰人의 香砂六君子湯에서 白茯苓은 少陽人의 약으로 생각되며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甲午本の 香砂六君子湯에서는 白茯苓을 去하고 白何首烏를 가하여 사용하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東醫四象新編』의 香砂六君子湯에서는 混用을 그대로 두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출전을 찾을 수 있는 처방은 人蔘吳茱萸湯이 있는데 人蔘吳茱萸湯에서 螻蛄가 太陰人의 약으로 少陰人의 처방에서 混用되어 나타나고 있다. 出典인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의 人蔘吳茱萸湯에서는 螻蛄 대신 官桂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등은 '以官桂 易螻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원문 자체를 존중하여 混用의 경우로 보았다.

처방의 출전을 확인할 수 없는 처방으로 牽正散과 保胎地黃湯, 贊化丹이 있다. 少陰人의 牽正散에서 白僵蠶는 「四象人藥」에서 太陰人의 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少陰人과 太陰人에서 混用되고 있다. 少陽人의 保胎地黃湯에서 山藥은 太陰人의 약으로 생각이 되며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少陽人의 贊化丹에서 紫苑은 太陰人의 약으로 混用이 나타나고 있다.

위 세가지 책에 나타난 藥物의 混用에 대해 살펴본 결과 초기저작에서 후기저작으로 갈수록 體質藥물의 混用 개수가 줄고 있으며, 특히 『東醫四象新編』에서는 甲午本에 나타난 藥物混用 처방

을 混用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李濟馬가 體質病證에 대한 인식이 깊어갈수록 체질에 맞는 약만을 가지고 처방을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저자의 이전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V. 結 論

- 『東武遺稿』에서 나타난 體質藥물의 混用例는 紫河車, 神麩, 稷, 鹿茸, 甘草, 黃芪, 朱砂, 葛根, 白芷, 升麻, 柴胡, 菘, 草龍膽의 13종이다.
-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 나타난 體質藥물의 混用例는 甘草, 白芍藥, 水銀의 3종이다.
- 『東醫四象新編』의 처방 중 人蔘吳茱萸湯, 溫白元, 三棱消積丸, 三物白散, 如意丹, 牽正散, 秘方化滯丸, 水銀熏鼻方, 白虎湯, 腎氣丸, 黃連豬肚湯, 涼膈散, 黑奴丸, 五苓散, 保胎地黃湯, 香砂六君子湯, 贊化丹, 猪苓湯의 18개 처방은 타 체질의 약물이 混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甲午本에서 유래한 처방이 14개, 辛丑本에서 유래한 처방이 1개 출전을 알 수 없는 처방이 3가지이다.
-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四象新編』의 混用藥물의 빈도와 경향성을 파악해 볼 때 이제마는 후기 저작으로 갈수록 체질에 맞는 약물로만 처방을 구성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I. 參考文獻

- 이을호.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지식산업사, 서울, 1995:101.
-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1967. 재인용
- 김명균, 박성식.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的 研究.(『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1):33-44.
-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77
- 박성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

- 질의학회지. 2001;13(2):4, 27.
6. 박성식.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7.
 7. 윤보현, 박성식.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4, 45.
 8.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05.
 9. 朴性植 譯解.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29, 275, 278, 283, 299, 305, 360, 366.
 10.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附經驗方. 文友社, 京城, 昭和四年.
 1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12.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國譯漢醫學大系 15). 海東醫學社, 서울, 1999:123, 128, 165, 172.
 1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0.
 14.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